

“개도국 체육 지원” 차별화 전략 ‘결실’

“집행위 ‘감동’시키는 전략을”

박상하 前대구유니버시아드 집행위원장



“2013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광주로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회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시민들의 열망과 열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집행위원장이었던 박상하(61) 대한정구협회장은 “대구U대회 성공의 원천은 대회 유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힘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2013년 광주 하계U대회 유치위원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그는 “최근 국제대학스포츠 연맹(FISU) 집행위원들을 만난 결과 광주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었다”며 “집행위원들이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는 문화도시로서 광주를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 U대회 유치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시아올림픽 위원회 부위원장, 동아시아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그는 “광주 U대회 유치를 위한 U대회 개최지 결정권을 가진 국제대학스포츠 연맹 집행위원들에게 광주의 대회 유치 열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느냐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구U대회 유치의 주역이었던 그는 대회 유치비결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참신한 전략을 내세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며 “광주도 러시아 과잔과 캐나다 퀘벡 등 경쟁도시를 이기기 위해서는 집행위원들이 ‘감동’시킬 수 있는 유치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제 1부〉 U대회 도시를 가다 ⑨ 대구 (상)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대구시는 세계적인 체육행사를 개최한 도시로서 국제적인 이미지를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리는 전기를 마련했다.

U대회의 성공이 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으로 얻은 ‘사고도시’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침체된 도시에 역동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음은 물론이다.

대구는 대회(2003년 8월21~31일) 개최를 앞두고 발생한 지하철 참사와 국제사회를 강타한 사스(SARS) 등 각종 악재를 극복, 유니버시아드 사상 최대 규모인 174개국 6천659명의 선수·임원이 참가하는 대성공을 거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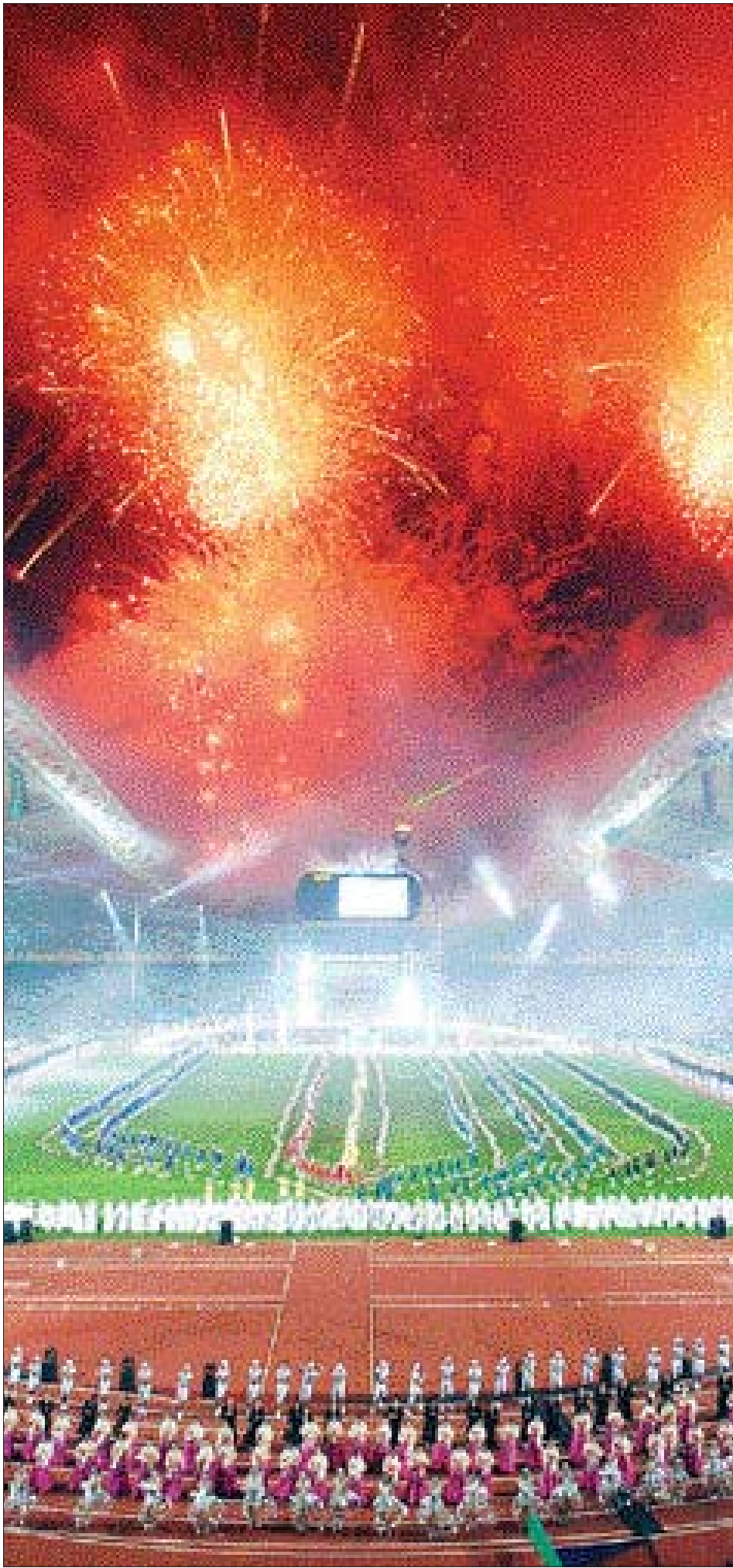
국제 스포츠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인구 240여만명의 작은 도시 대구는 2000년 7월 14일 대회 유치를 확정지으면서 세계 스포츠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 대회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지 불과

목을 받았다. 언론의 폭발적인 관심은 광고 후원, 기업 스폰서 유치로 이어져 ‘홍행성공’이라는 성과를 올린 밑거름이 됐다.

유니버시아드 사상 처음으로 선수촌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주효했다. 선수촌 건립은 대부분 대회 개최 국가들이 대학의 기숙사나 유스호스텔 등지를 숙박장소로 제공해왔던 관례를 깨뜨린 파격적인 유치 조건이었다.

대구는 동구 금호강 옆 동호택지 개발지구 내 3만4천여㎡ 부지에 24개동 1천935세대를 수용하는 선수촌을 건립, 올림픽 수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각국 선수·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국제 대학스포츠 발전을 위한 FISU 학술 콘퍼런스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는 비전제시도 집행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구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치러지던 학술 콘퍼런스를 세계 37개국 879명의 스포츠 전문가와 교수



대구는 2003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그린시티, 패션시티, 첨단 IT시티’의 이미지를 각인, 세계 도시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펼쳐진 개막식 행사. <광주일보 자료사진>

재수끝 유치 성공...‘골리앗’ 이즈미르 꺾여 북한 참가 유도·장학재단 설립 제안 주효

한 달 보름 동안의 유치전을 통해 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던 ‘골리앗’ 이즈미르(터키)를 당당히 꺾은 것이다.

대구의 U대회 유치성공은 재수 끝에 얻은 결실이었다. 대구는 지난 1997년 대회 유치확정 단계에서 국내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편입되는 바람에 대회 유치를 꿈꿨을 바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구는 유치실패의 경험을 노하우로 축적,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내세워 개최지 표결권을 가진 FISU 집행위원들을 효과적으로 공략, 대회 유치를 성사시켰다.

우선 집행위원들에게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격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이 주효했다. 대부분 개발도상국인 아시아 국가 참가 선수단에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를 과격적으로 할인, 평화와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는 약속이 집행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대구는 북한의 대회 참가를 비장의 카드로 제시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집행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과 북이 한자리에서 만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인류화합의 정신을 구현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실제 북한 선수단이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대구 U대회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 언론의 주

목이 참여하는 짜임새 있는 행사로 치러짐으로써 국제 스포츠계 주요 인사들에게 대구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심었다.

대회 유치에 뼈기를 박았던 유치조건은 FISU에 젊은 체육인 육성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이는 대회 유치로 얻은 자금을 출연해 전 세계 각국의 젊은 선수와 지도자, 심판들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박상하 당시 대회유치위원장은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내세우지 않았다면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이즈미르를 제치고 2003년 대구 U대회를 유치하지 못했을 것이다”고 회고했다.

대회 개최 장소를 실사하기 위한 집행위원들의 대구 방문에는 결정적(?)으로 집행위원을 감동시켰다는 후일담도 전해진다. 유난히 밝은 아프리카계 집행위원 중 한 사람이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이 불편하다고 말하자 안 내를 맡았던 공무원이 대구 시내를 이잡듯이 뒤져 맞춤형 신발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는 마침 집행위원이 머물던 숙소에서 있던 달력 한 장을 찢어내 즉석에서 집행위원의 발 모양을 그린 뒤 대구 시내 신발가게를 뒤져 가장 편안한 신발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대구·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대회 성공 밑거름 자원봉사자



200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배구경기가 열린 대구체육관에서 오스트레일리아를 응원하고 있는 대구 시민서포터즈.

참석률 98%...2만8,021명 서포터즈

2003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성공의 밑거름은 시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숨은 노력이었다.

대회기간(2003년 8월21~31일) 동안 해의 동포를 비롯해 전국에서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무려 1만556명에 달했다. 이들은 대회가 열리는 11일 동안 자원봉사 참석률이 98%에 달할 정도로 높은 참여 열기를 보였다. 특히 대구·경북 시도민으로 구성된 2만8천21명의 서포터즈는 참가국 환영행사는 물론 경기장에서 열린 응원활동을 펼침으로써 대회 성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대구는 이같은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참여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시·도민 서포터즈들에게 일체감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대륙별 서포터즈 유니폼과 모자를 제작, 배포하고 다양한 응원을 위해 소형국기, 플래카드, 막대풍선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했다.

참가국 선수들에게 차별화된 서포터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74개 참가국 가운데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86개 주한대사관으로부터 참가국의 전통풍속, 환영·환송 문구, 응원구호 등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넘겨받아 참가국 ‘안내 팸플릿’을 제작, 참가국 알리기에 나서기도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매매 및 교환 ♣
전남 신도청 앞 일반 상업지, 숙박, 위탁시설부지(건축가) 140평(평당 700만)절충가, 상가건물 교환상담 환영
☎ 011-330-9365 (주인직)

대인동삼일부동산
☎ (대)223-1140, 5210 ☎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옆,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므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건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대)383-5221 ☎ 111-609-5221 (구상무대 전문)

▶ 빌딩
• 대지500 건물1,300 현안병원역할차량용 매대가 75억
• 보증금 35억 월세3,100만원 (지역내 고상권) 용적2억 매가 780억 (특1차, 교환가능)
• 보증금38억 월 1,700만원 (신축) 용적1억 매가 34억
• 보증금20억 월세4,000만원 용적18억 매가 185억
• 보증금5억 월세2,000만원 용적7억 매가 27억

▶ 땅
(상무지구)
• 2,800㎡(850평) 3.3㎡당 1,200만원 (동원동1고물로인구)
• 727㎡(220평) 3.3㎡당 1,200만원(유류창고)
• 450㎡(136평) 3.3㎡당 850만원(유류창고)
• 330㎡(100평) 3.3㎡당 800만원(사립학교)
• 3,593㎡(1,087)3.3㎡당3600만원(7타지구)
• (생촌동)800세대(아파트)7677㎡(266평) 3.3㎡당 350만원(수익주택)
• (동성동)273,000㎡(2만2천평) 농장 3.3㎡당 112만원(신축)
• (생촌동)대지512㎡(155평)20M 도로선 3.3㎡당 265만원
• (장동동) 3,760㎡(1,140평)평당402만원

▶ 병원·화원·수퍼·식당 기타
• 4,300㎡(1,300평)3.3㎡당 350만원 (동원동1고물로인구)
• 근린시설(병원, 화원, 목욕탕) 1,652㎡(500평) 3.3㎡당 700만원 (하남지구)
• 1,200㎡(360평)3.3㎡당 350만원 (병원, 화원, 식당) (금호지구)
• 대지528㎡(160평)3.3㎡당 470만원 (주공아파트정문 앞)(수영지구)
• 미지189억

▶ 모텔·호텔매매·사우나
• 객실35개 용적29억 매가28억
• 객실33개 용적19억 매가12억
• 객실500/건물1,900 사우나 매가189억

★24시간 전화문의 접수합니다★

대지공인중개사
(공정 책임중개)
☎ 010-8572-8985

『담양군 대덕면 임야』
18032㎡ 매3.3㎡당 4만3천원 관리지역 2차선도로 150m 집(공장, 물류창고, 사회복지시설적합)

『담양군 창평면 임야』
36023㎡ 매3.3㎡당 2만6천원 2차선도로 85m 집

『혹성동 자연녹지 집중지』
9300㎡ 매3.3㎡당 180만원 (물류창고적합)

『임동 주거지역 8차선대로면 주공아파트 정문가면』
대지900㎡ 매 7억5천만원 (전사판매장, 물류창고, 사육적합)

『중흥동 35m대로면』
대지920㎡ 한정식식당2층 건물있음 매9억5천만원 (고급식당, 사육, 물류창고, 전사판매장, 카페적합)

『신안동 상업지』
대지339㎡ 조린식 건물있음 매2억5천만원

부동산 중개업 동업자 1명 구함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선컨설팅평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함
Tel: 062)973-9174, 016-757-8800

수완택지지구 200평
청단지구 500평 200평
전용 28억 (보4억 월2000만원)
광복연습장(광주) 주유소 부지
공장부지 (담양 2천~8천평)

분양·임대

첨단중앙메디칼센터 (2008년 2월 준공)

53평	편의시설
1층 58평	
40평	

2~6층 각 166평 병의원

7층 70평 모든업종가능

건물 28억

• 광주·장성권 토지 건물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0-3625-1362
첨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한일지도판매(주)
☎(06)529-1408 상동 010-2466-1408 (전동)527-6310, 011-9433-6310
(광주시 동구 자산동 373-8 번영정문앞)

2008최신 합본(광주·나주·순수·정평·담양·함평) 지번도 책 판매중

안녕하십니까? 한일지도(주) 20주년을 맞이하여 합본책을 제작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합본책은?

- 1. 광주** 광역시 전지역 재개발·도시계획·용도지역·하남4공단 경계수목 최신지적, 신규APT 수목
- 2. 나주** 나주시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2차 해제수목, 나주송월동 스포츠타운 수목, 송월택지개발지구 기지반수목
- 3. 순수** 나주 춘곡리 남양읍수목, 함평·담양·북평매가 50만원 혁신도시 최첨단 수목, 혁신도시로 연결된 도시계획 수목
- 4. 정평** 화순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차 수목, 최신지적 수목
- 5. 담양** 담양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차, 2차 수목, 최신지적 수목, 보춘지구 수목
- 6. 함평** 함평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차 해제 수목, 최신지적 수목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정평·담양·순수·나주책은 그린벨트 해제된 책은 없습니다. 이외 더 많은 부분들이 있으나 사전으로는 다 알릴수가 없어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으신 분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판매처에서 합본책과 전화 예약주문에 한하여 합본책이 50%세대를 단합하였으니 좋은 기회를 이용하세요.

【영업시간】 00명 모집